

권오신의 문화산책

매헌 권사민의 시문학 (2)

梅軒 權士敏 詩文學

문장력에 빼어난 학자여서 당대의 명상(名相)이자 영의정이신 오리 이원익(1507~1634)공은 “나의 태어남이 늦어 매헌공의 효성과 충의, 그의 고고한 학문을 알지 못했다가 차기(筮記) 사실만을 기록한 상소문) 가운데 영남의 여러 여진 선비의 견줄 권사민이란 석자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을, 당시 조정에서 정사를 논했던 승지 완산(完山) 이경환(李謙煥)이 들고 사적기(事蹟記)에서 남겼다. <領議政 梧里 李元翼이 이 글을 남기신 시기는 壬戌(1562)에 府를 설치할 때였다.>

산림(山林)에 묻힌 한 선비의 학문이 한양까지 알려진 증거(證據)이기도하다.

또한 도체찰사에게 올린 두루마리 상소문은 “안진경(顔眞卿) 당나라의 정치가이자 서예가, 그의 글씨는 근엄 완곡하며 특히 초서를 잘 써 당대 최고 서예가로 꼽혔음)의 서첩(書帖)과 더불어 길이 세상에 전해져서 사람은 죽었지만 정신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서산(瑞山) 유영로(柳榮魯)가 발문(發文)에 쓰신 것을 보면 이 역시 매헌 선조의 학문과 정신세계, 그 사상이 얼마나 지순지고(至純至高)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직전으로 관통하였던 매헌 선조를 평가하신 글은 당대의 명사이신 오리 이원익공을 비롯 이조판서, 대사성을 지내신 황경원(黃景源), 대제학 홍양호(洪良浩), 지중추부사 권상일(權相日) 등 임란이후 조선 사림과 의정부, 성균관, 육조에서 이름을 떨쳤던 4분이 자필로 쓰고 남긴 기록이 전해진다. (韓國國學振興院 保管)

경주향도장초(慶州鄕道狀草)엔 경상도 45개 고을에서 220명의 사림이, 경주향교와 서약서원 등 6군데 서원 유생 440명이 연명으로 포증을 요구한 상소는 5백년 조선 역사상 쉽게 찾을 수 없었던 유림들의 의지였다.

2백년을 뛰어 넘었지만 매헌 선조의 학문과 시심(詩心)이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후학들의 빼어난 찬사가 상소마다 실렸다. 이런 일은 조선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일로 기록됐다.

제목만 간추려 보면 어사가 임금에게 올린 글과 승정원일기, 어사에게 올리는 글, 도찰사(觀察使) 순상(巡相)에게 올리는 글, 예조에 올리는 글, 관보에 올리는 글, 감사장계(監司狀啓), 본향사림문보(本鄕士林文報), 호군(護軍) 강덕항(姜德恒) 상소, 청서회 장계(淸書回狀啓), 망우당문집(忘憂堂文集)에 기록된 매헌실록, 경주읍지 등이다. 요즘으로 치면 팩트에다 최고의 문장력이 뒷받침이 된 글이어서 당시 상황을 금방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자처(自處)하지 않음은 광망우당(忘憂堂 郭爾祐)과 같고 남보다 먼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조중봉(朝宗 鄭憲: 1544-1592: 옥천에서 임란이 일어났던 4월 하순, 조선에서 맨 먼저 거병,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과 같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충원 박재광의 서문에서 발췌> 경주 일대에선 매헌 선조의 창의가 가장 빨랐음을 증명해주는 기록이다.

운문(文云云)을 살펴보면 정신세계와 시대상이 빼어난 문장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결과 속이 다르지만 사람의 도리를 보면 진실로 앞과 뒤의 두 가지 이치가 없다는 데 대하여...간추려 보기로 한다.

<사람이君子가 되고 小人이 되는 것은, 그가 하는 행위가 착한가 착하지 못한가으로써 판단이 된다. 비록 그가 하는 행위가 착한 것이라도 그 행위를 하려는 본래의 뜻이 착하지 못하다면, 자신의 수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략)

말(言)은 마음의 나타남이요, 눈(目)은 정신의 드러남이다. 마음이 진실로 바르면 말로 성실하여 거짓이 없을 것이고, 마음이 진실로 바르지 않으면 눈에 나타나는 것이 흩어지고 어두울 것이



옥연서당

다. 이따금 그 말을 듣고서 그 옳고 그름을 살피며 그 눈동자를 보고서 그 밧고 어두움을 징합한다면, 사람의 현명함과 그렇지 못한, 사악함이 과 비뚤을 명료히 볼 수 있어서 숨길 수 없다.

詩1) 초감리 서재(草甘書齋俚吟) 아침엔 나물먹고 저녁에는 소금이라 해로는 신사년(1581)이요. 달로는 삼월이네 안빈(安貧)의 즐거움 내 무엇을 바라리오 쓴 것 씹는 찬 서재에 풀 또한 달다네 <신사년(1581년, 24살) 3월, 詩를 지은 장소와 연대가 나와 있어 매우 흥미롭다. 詩에도 나와 있듯이 초감리 서숙 생활이 무척 가난했음을 알 수 있다. 몹시도 가난 했으나 책 읽는 마음만은 편안하셨던 것 같다.>

詩2) 옥수동(玉水洞) 산 아래의 맑은 시내엔 길 하나 뚫렸는데 죽장과 망혜(芒鞋, 짚신을 신고)로 날마다 거니는 구나 한가로운 늙은이가 즐기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근원에서 옥수(玉水)가 흘러오고 있지요 <필자가 종중에서 찾은 사료는 임진왜란도 평정되고 진사(進士)급제(及第)를 한 두 아들을 두었을 시기였다. 이때는 생활이 안정될 때이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로 안빈(安貧)을 즐겼으며 여름철엔 특히 습성습성 맑은 짚신을 즐겨 신으시고 한 마리 미물도 밟혀 죽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신 생명 존중 사상이었기도 했다. 천성이 검소하여 폐양자(弊陽子: 버들로 짠 모자)와 추포의(麤布衣: 거친옷)를 주로 입으셨으며 길을 걸을 때도 소매에 책을 넣어 말 대신 소를 타고 다니셨다. 漢詩는 5백수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나 30수만 實錄에 올려 저 어취움을 남겼다. 詩나 운문은 화제로 거의 불타고 문중에 전해져 내려오던 글들도 후손(後孫)들의 무지로 실전 된 것으로 보인다.>

詩3) 매화를 심어 두고 詩를 읊음(種梅擧吟) 세상 사람들은 매화를 알지 못하고 매화를 다만 매화로만 사랑하네 어떤 이는 형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아내로 여기기도 하구나.(매화를 지독히 사랑했던 송나라 西湖 林淸은 매화를 두고 梅兄 또는 梅妻라고 읊은 글을 비유하다.) 정다운 꿈은 나부(羅浮: 隋나라 사람 趙師雄이 羅浮山에서 미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잠들었는데 깨고보니 매화나무 아래였다)는 故事)로 가고 다리 저는 노새는 폐수(詩人 孟浩然이 詩를 쓴 곳)로 돌아오네 공부방 창문 아래 심었다니 차가운 향기가 밤새도록 날리누나 따스한 봄소식 찾아왔으나 때는 바이흐로 선달이란다 (다음호에 계속)

뮤지컬 행주대첩 공연

제13회 고양행주문화제가 2018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행주산성에서 개최되었다. 이승엽 고양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권율장군의 정신을 이어받고 행주대첩 승전을 기념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행주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또한 “귀중한 문화유산은 후손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잊혀지는 것이라서 놓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제 마지막 날 저녁 8시부터 행주산성 대첩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권율도원수의 행주대첩 뮤지컬은 권율 역에 배우 정도원과 연화역을 맡은 배우 전소미 등 20명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1000여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역사의 현장에서 공연된 뮤지컬은 권율도원수의 정신과 승전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품이었다. 권율도원수는 관군과 의병과 승병 그리고 행주치마를 두른 아내네들을 하나로 일치단결시켜 3만의 적을 치열한 전투 끝에 물리치



권행원 편집국장, 권기성 이사, 권율역(배우 정도원), 연화역(배우 전소미), 권순용 사무국장, 신택기 감독(왼쪽부터)

는 공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위인’이었다. 수많은 관객들은 ‘위인’ 권율도원수가 마치 다시 살아오는 듯 숨죽여 지켜보았고 뮤지컬 중간 중간 아찔없는 박수로 화답하며 열광했다. 관객들은 뮤지컬이 끝나도 한동안 가지 않고 배우들과 사진을 찍으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뮤지컬 총 연출은 신택기 감독이 담당했다. 신감독은 수년째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대종회에서는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이 공연되는 9월 권행원 편집국장권기성 대종회 이사 그리고 권순용 전국청장년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았다. 고양시와 고양문화원은 매년 고양행주문화제를 행주산성 일대에서 개최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원

옥소탄신 347주년 기념 제15회 옥소예술제

옥소(玉所)는 무명옹(無名翁), 백취옹(百趣翁), 천남거사(天南居士) 등으로 불리던 권섭(權燮, 1671-1759)의 호이다. 옥소를 그대로 풀이하면 옥 같은 곳이다. 옥같이 맑고 품속 길이 아늑한 곳을 평생 자신의 안식처로 삼고 싶어 했다. 시인은 스승이자 백부인 수암 권상하가 당쟁에 휘말리고 우암 송시열을 위시한 주변 인물들이 유배와 죽음의 참극으로 접철할 때 일찌감치 청운(靑雲)의 꿈을 버리고 문학으로 옥소(玉所)를 찾아 나섰다. 시와 그림을 그리며 전국의 산천을 돌아다녔다. 백부 수암 권상하가 돌아가시자 고향인 정풍(현재 제천시 청풍면) 강 마을로 돌아와 ‘고산정사’를 짓고 시화(詩畵)에 푹 빠졌다.

내 사는 곳이 그림 속 같고(吾居如畫圖中) 붓이 그린 세계가 더욱 그러하니 이게 실재인가 그림인가 꿈속의 나를 분별할 수 없다 (옥소의 글, 한천장 능강동에서)

마치 장자가 나비 꿈을 꾸 적이 있었는데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된 것인가 알 수가 없다고 했듯이 옥소 또한 그림이 실재인지 실재가 그림인지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옥소 권섭의 문학적 위상을 재고시

키면서 제천 시민의 문화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제로서 옥소문화제는 2004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다. 주관처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북도연합회 제천시지회는 제7회 옥소예술제부터 그동안 분야별 발표나 전시회로 꾸며지던 행사를 종합예술제로 개편하여 개최하고 있다. 매년 10월 중순 경 조선시대 문화의 황금기를 있게 한 옥소 권섭(시중공과 28세, 1671-1759) 선생의 예술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으려 옥소예술제가 거행되는 것이다. 올해로 벌써 15회째이다.

옥소 권섭 선생은 일생을 전국 방방곡곡 명승지를 유람하며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보고 겪은 바를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는 사실적이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이면서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만 해도 방대한 양을 남기고 있어 오늘날 전해진 것만 해도 3000여수의 한시(漢詩)와 시조 75편, 가사 2편, 제천지역의 절경을 읊은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등을 지어 한국문학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린 시인이다. 문집으로는 옥소집(玉所集)이 전한다. 2018년 10월 12일(금)에는 제천예총에서 옥소 권섭 선생의 문학혼을 기리고자 “옥소 권섭을 노래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우리 소리를 대중화하는데 큰 공



을 이루신 당대 최고의 명창 신영희 선생을 모셨다고 한다. 신영희 선생과 옥소 선생의 만남은 공감을 넘어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옥소문화연구소를 창립하여 본격적으로 옥소의 문학과 문학상을 연구할 예정이다.

- 옥소고유제(10시) : 장소 문암영당
- 제1부(15시) 개막식 : 명창 신영희 “옥소 권섭을 노래하다”(특별출연)
- 제2부(16시) 축하공연 : 국악공연, 뮤지컬 갈라, 심포니오케스트라, 시극 의림지아리랑
- 제3부(18시) 옥소가요제 : 유명 가수들과 시민과 함께 하는 노래한마당 큰잔치
- 사전전시회 : 장소 문화회관 로비
- 옥소시화전 : 장소 의림지 수변무대 일원 등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정당한 역사 재평가는 ‘나’ 부터 시작됩니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의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 육지의 권율이 있었기에 바다의 이순신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1인당 100명 서명운동은 국가행사 격상의 초석이 됩니다.
가정, 직장, 동네, 동호회 등에 자랑스러운 권율도원수를 알리고 서명을 받으시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